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기(1차)

최 은 진
(부산 메리놀 병원 간호사)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시렸다. 끝까지 환한 얼굴로 배웅해 주시던 야마다 부장님, 그 옆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시던 이께다 선생님, 가는 길에 먹으라고 오까시(과자)를 내 손에 꼬옥 쥐어주셨던 5-2 병동 시쵸우상, 이때쯤 뭔가 몽클한 것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그 뒤로 우리들을 집처럼 안락하게 만들어 주었던 마리안 하우스, 2주간의 배움터였던 성마리아 병원의 곳곳이 차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에 질세라 머릿속을 차례로 메웠다. 후쿠오카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기대 채 모두들 말이 없었다.

이이에(아니오)와 하이(예)에 대한 확실한 믿음하나라 우리들의 연수생활이 시작되었다. 연수생활 내내 엄마처럼 챙겨주시고 대화의

물꼬를 트이게 해 주신 이께다 선생님과 국제협력부에 근무하는 전향적인 일본 미인 토도상의 안내로 들어선 마리안 하우스는 1층 라운지와 부엌, 5층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비롯하여 숙식에 필요한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었고, 세계 각 국의 사람들이 머물고 가는 곳이기엔 기대보다 훨씬 깨끗하고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었다.(아주 가끔씩은 house keeper 인 야스나미상의 눈치를 살펴야하긴 했지만) 몇몇은 혼자 자기가 무섭다고들 했으나 나에게서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아침마다 들리는 알 수 없는 새 울음소리도 연수 첫날 타국의 정서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모두들 좀 꺼림직해 했으나 나중에는 별걱별걱 들이켜도 연수기간동안 탈 한번 난 사람이 없었다.

연수 이틀째와 삼일째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성마리아 병원에 대한 소개와 연수일정 오리엔테이션, 일본 간호교육현황, 개호보험과 방문간호, PFFC(patient family focused care)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후쿠오카 구루메에 위치하고 있는 성 마리아 병원은 총 1388병상에 간호사대 환자의 비율이 평균

1: 2-3 으로 철저하게 환자와 가족중심의 간호를 표방하고 있었다. 매우 다양한 인력, 간호사, 준간호사, 조수, 보건사, 개호복지사, 보육사, 아르바이트 학생, 사무원들이 적제적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우리들의 관심사는 단연 다양한 인력에 관한 것이었다. 간호사들의 복장과 2 shift제도, module system,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위한 개호보험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 이 교육을 담당하셨던 야마다 부장님(직함은 시초우상- 우리말로 구지 번역을 한다면 간호사장님이라고 했다)은 리더로서의 우직함과 직원간의 수직적인 위치를 따지기 보다는 팀 전체로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넓은 포용력을 겸비하신 분으로 연수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주셨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오하마 선생님은 단아한 용모를 가지신 분으로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친절하셔서(마치 일본인형을 연상케 하였다)연수 내내 우리들의 카메라에 1등 모델로써 인기 폭발이었다. 성마리아 병원에 대한 첫 인상은 한마디로 외유내강형의 가톨릭 정신이 물씬 풍겨나오는 곳이라는 것에 우리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내일 있을 교류회를 내심 걱정하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여운으로 밤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이 때부터 우리 팀의 화려한(?)나들이도 시작되었다. 우리보다 먼저 NICU에 연수의료 파견나와 있던 충남대학교 천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오직 知人 의 부탁 때문에 하던 일 모두 제쳐두고 훌쩍 날아오신 갱상도(경상도) 교수님의 확실한 안내에 힘입어 우리들의 두 발에 파워 만점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병원 응급실, 외래, 보건센터, NICU, 순환기 병동, 성모의 집, 호스피스 센터 등을 견학하였는데 성모의 집 5층에

마련된 노인 요양 시설과 건물 옥상의 노천 온천을 보고는 일본이 노인간호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오후에는 각 병동의 시초우상과 주임간호사들이 모인자리에서 연수생들이 자기 병원에 대한 소개를 하는 교류회를 가졌다. 모두들 열심히 잘 준비했고 일본어도 능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어제 밤 눈 비벼가며 깨알같이 적어놓은 한국말 토씨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그날은 발표회를 끝마쳤다는 안도감과 내일부터 있을 개별 연수에 대한 설렘으로 또 한번 하얀 밤을 보내야 했다.

“모든 과의 staff선생님들이 직접 내려와서 응급실 환자를 봐 주고 보호자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 응급실 연수생 배상

“수술방 기구들이 정말로 오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면서도 디스포자블 같이 버려야 되는 것은 확실히 처리하고 원칙대로야”-----수술실 연수생 夏상

“이쪽 간호사들은 환자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수술실 연수생 河상

“외래에 진찰 온 산모에게 간호사가 breast massage해주는 데 거의 3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확실하게 care를 하더라” ---- MFICU연수생 치상과 맹상

“여긴 기계에다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환자, 사람 중심이야”-----MICU 연수생 진상

“시설이 최고라서 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입원환자에게 약사가 직접 복용법을 설명해 주고 신생아실 우유는 영양사가 만들고

참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구,-----”
MICU연수생 최상

“여기 환자들은 엄청 질 높은 간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성모의 집 연수생 서상

개별 연수 첫날을 마치고 쏟아져 나온 말들이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가며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하였는데 물론 장점이 훨씬 많이 언급되긴 했지만 chart의 방대함, 병원내 공간 활용문제, 후미진 곳의 청결 관리 등이 우리들의 예리한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공식적인 일과가 끝나는 오후 4시 이후로는 각종 전자제품들의 진열장인 야마다 덴끼(전기), 우리나라 지하상가의 의미이지만 거리가 훨씬 넓고 아름다운 Arcade, 100엔 하우스, 다양한 생필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상가 Daiei, 그곳에서는 제일 크다는 백화점, 베이커리, 우동집, 라면집 등등 병원 근처를 이잡듯이 구경하고 다녔는데 우리팀이 간 곳의 방문횟수를 전부 합쳐서 계산해보자면 진짜 10손가락으로는 부족할 지경이었다. 매일마다 그렇게 많이 걸어보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다. 덕분에 8박스나 준비해왔던 먹거리를 거의 해치우고도 늘어나는 허리사이즈를 그나마 붙잡을 수 있었으니 보는 즐거움에 먹는 다이어트까지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닌가!

토요일에는 병원측의 배려로 부로콜리를 잘 다듬어 함께 뭉쳐놓은 듯한 가로수 길을 2시간 쯤 달려 나가사키에 갔었다. 나가사키 왼쪽자료관을 둘러보고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대한 청동상 앞에서 다함께 포즈를 취한뒤 戀人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라바엔을 구경했다. 저녁회식자리에서는 일본 샤부샤부 정식을 먹었는데 평소 나오는 일본식 음식에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았던 터라 그 날은 포만감으로 더 없이 기분이 좋았다.

일요일과 일본의 국경일인 월요일에는 자유로이 관광할 수 있는 기화가 주어졌는데 아침 일찍부터 우리들이 손수 만든 김밥을 짊어지고 일본의 전통이 숨쉬는 곳, 다자이후로 향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가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구경할 구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 검객들이 무술시범을 보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명성황후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소 씁쓸함을 거리에서 직접 만들어 주는 모찌의 달콤함으로 다래고 오호리 공원에 들러 아기가 예쁘게 꾸며놓은 일본식 정원을 둘러본 후 후쿠오카 시내 관광에 나섰다. 모처럼 도시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휘황찬란한 야경을 배경으로 하나, 둘, 셋 김치이~ 월요일, 우리의 구마모토시 관광일지 또한 이 지면이 부족할 정도다. 완전히 우리 혼자 힘으로 기차, 버스, 전차 등 각종 교통수단을 바꿔타며 다녔는데 한 번도 막힘이 없었다. 마지막에 약간 빠긋해서 비 좀 맞았지만 여행지에서의 추억으로 간직하기에는 안성마춤이었다. 그때 비에 흠뻑 젖은 옷 말리며 먹었던 뜨끈뜨끈한 신라면의 맛! 잊을 수 없다. 아 참! 일본이 교통비가 비싸다고는 하나 일본의 모든 교통수단을 꼭 한번쯤은 타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 맛이 각기 다른것이 재미가 솔솔하니까. 일본의 3대 명성 중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에서 독특한 형식의 석벽을 신기하게 둘러 보고 천수각까지 올라가 아래를 바라보니 경치가 일품이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거의 없었던 일본이었기에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은근히 기분이 언짢아 짐을 뒤로하고 무사호소카와 교부의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내자의 영성한 일본식 영어발음이 귀에 거슬렸지만 다 좋은 말이라니 해석하고 여기가 마치 우리집인 것처럼 품잡고 이치, 니, 상, 찰카.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날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는 사람들, 편안한 내방, 한 자씩 한단어씩 더 잘들리게 되는 일본어, 너무나도 귀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정말 떠나오기가 아쉬웠다. 그 아쉬움이 안타까움으로 변해 연수 마지막 날에 내가 아마도 부장님께 한 1년 정도 이 병원에 취직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는 다들 한참을 웃었다. 계속되는 개별 연수를 마치고 금요일에는 연수 수료증을 받고 연수내용을 평가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단한 양케이트를 작성하고 연수생활 동안에 느낀 점을 서로 나누었다. 일본의 간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독자적으로 발전시켰고 현재도 그런 식으로 진행 중이라는 아마도 부장님의 말씀에 일본 간호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준비해 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는 오후에는 우리들이 송별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바쁘게 손을 놀려 불고기, 비빔밥, 고구마전, 김치전, 호박전, 미역국, 디저트까지 정성스레 차린 상으로 고마우신 분들을 맞이하였다. 이구동성으로 오이시이(맛있다)를 연발하셨고 한국 김치의 인기도 대단했다. 송별회에서 언어학 역사에 새 지평을 열 만한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짝꿍이 된 우리들의 새로운 랭귀지의 위력은 가히 가공할만하였다. 구지 어려운 단어가 아니더라도 애써 완벽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서로간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고 분위기 또한 거의 환상, 화기애애 그 자체였다. 새로운 랭귀지를 구사하는 나를 보고 오오하마 시쵸우상이 오모시로이(재미있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한바탕 배꼽을 쥐었다. 그렇게 우리들의 꿈같은 연수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웃음소리 특이하고 2주 내내 프레젠토(선물) 때문에 다리 폼뻐나 팔았던 말인니 하정

희 선생님, 뛰어난 일본어 실력으로 우리들의 완벽한 일본 가이드였던 맹주숙 선생님, 성격 푹 부러지고 자전거 잘 타시던 차용자 선생님, 연화 원화 따져가며 회계보노라 수고하신 진운정 선생님, 말없이 일 잘하고 은은한 분위기의 소유자 배은경 선생님, 얼굴 진짜 예쁘지만 성격 한터프했던 하호천 선생님, 막내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눈도장 찍어주었던 팀장 서임선 선생님 그리고 연수 기행문 쓴다고 처음에 짐 적어서 좋아했다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 배꼽시계 최은진, 단체 생활에서 각자의 것을 조금씩 다 양보하고 서로를 먼저 배려했던 우리 전 멤버들, 우리 정말 귀찮은 걸(girl)인것 같아 그죠?

낯선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려고 코 밑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열심히 애쓰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형식보다는 내용이 짝 찬 실속파 일본의 간호에서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보자고 다짐해 본다.14박 15일! 가랑비같은 날들이었지만 일상의 메마름에 소나기를 뿌리고 갔다. 그것도 흔치 않는 9월에

